

『東洋醫藥』 연구

정지훈¹⁾

Study of 『DongYangEuiYak』

Jung Ji Hun

『DongYangEuiYak』 is a magazine that was published three times to reconstruct Korean medicine. Publishing the magazine was led by executives of the East and West Medicine Research Society, especially Kim younghun and Cho hunyoung. The magazine contains reconstruction of Korean medicine, medical history, pulse, herb, Sasang medicine and etc, in depth. Editorial department of 『DongYangEuiYak』 tried to boom Korean medicine and reeducate the people working in Korean medicine field by answering reader's questions and medical counselling articles and articles in correspondence course form. Studing courses and founding herb town after the publishment of 『DongYangEuiYak』, reflects well the culminated atmosphere of Korean medicine.

I. 서론

『東洋醫藥』은 1934년에 金永勳, 趙憲泳 등이 중심이 되어 침체된 한의학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의학 학술잡지이다. 이 잡지는 東西醫學硏究會라는 한의사 단체의 기관지의 성격을 띠고 3회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 학술 잡지는 이 시기의 한의학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볼 수 있다.

일제의 식민정책이 날로 가혹해져갈 즈음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자주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1930년대는, 漢醫界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시기였다. 『東洋醫藥』의 탄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생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1920년대에 東西醫學의 회통을 시도하려고 간행된 『東西醫學研究會月報』와는 잡지의 성격상 완전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²⁾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東洋醫藥』을 분석하여 그 학술사상, 학술적 경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1930년대 한의 단체의 활동상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론에서는 먼저 『東洋醫藥』의 발간연혁, 발간목적, 발행 주도인물 등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동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漢醫學復興論 등의 내용 및 학술경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볼 때 『東洋醫藥』이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I. 본론

1. 『東洋醫藥』의 발간 연혁

『東洋醫藥』은 1935년 1월 1일에 제 1호가 발간된 후 같은 해 5월 1일에 제 3호가 발행되기까지 총 3권이 발간되었다. 醫生들의 학술연구 장려와 지식의 계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東西醫學研究會에서 발행한 이 잡지는 趙憲泳을 編輯兼發行人으로 하여, 金永勳, 張基茂, 李乙雨, 李乙浩 등이 저술한 한의학 관련 논설 및 이론 등을 실고 있다. 창간 당시에는 월간지의 형식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시대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격월간으로 나오다가 제 3호가 나온 후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2. 『東洋醫藥』의 발간 목적

『東洋醫藥』의 발간 목적은 第一號에 실린 創刊辭에 잘 나타나 있다. 創刊辭에는 “東洋醫學을 재인식하고 西洋醫學을 재검토하여 漢醫學을 무조건 멸시하던 과오를 고치고 서양의학을 무조건 숭배하던 迷妄을 깨뜨려서 엄정한 비판 하에 양자의 短處를 버리고 長處를 취하여 의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고 하여 잡지 발간의 취지를

2)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연구」(『韓國醫史學會誌』 15권 1호)에 기술되어 있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東洋醫藥』은 東洋醫學의 現代化, 東洋醫學의 民衆化, 東洋醫學의 學術的發展 등의 3대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創刊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東洋醫藥』은 당시에 서양의학에 대한 무조건적 신봉을 비판하는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시점에서 朝鮮에서의 漢醫學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겨 漢醫學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東西醫學研究會라는 동일한 단체에서 이전에(1925년) 東醫學과 西醫學을 결합시켜 溫故知新하는 자세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침체된 漢醫學을 발전시키려는 목적 하에 발간된 되었던 『東西醫學研究會月報』와 비교한다면 그 목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3. 『東洋醫藥』 발행주도 인물

『東洋醫藥』은 발행단체인 東西醫學研究會의 주요임원들에 의하여 그 발간이 주도되었다. 당시 東西醫學研究會의 임원진은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會長에 金明汝, 副會長에 安孝式, 李明善, 幹事に 金東熏, 金鍊煥, 金永勳, 趙憲泳, 李元模 등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評議長에 李乙雨와 評議員이 27명이 있었으며, 顧問을 韓秉璉, 李祥源 등이 맡았다. 아마도 이들이 본 잡지의 발행을 주도한 인물들일 것이다.

이들 중 『東洋醫藥』을 발행한 東洋醫藥社의 사원으로 主幹을 지낸 趙憲泳과 編輯部長을 역임한 金永勳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趙憲泳은 1900년에 태어나 1988년에 사망한 한의학자이다. 그의 출생지는 경북 영양 혹은 강원 등으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데, 저작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6·25 때 납북되어 생사를 알 길이 없었으나 최근에 1988년 북한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의 호는 海山이다. 그는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1934년에 발간한 『通俗漢醫學原論』이다. 이 책은 한의학의 홍보책자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한의학의 입문서로 활용하였다. 그는 『東洋醫藥』의 編輯兼發行人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시의 많은 지방에서 열렸던 漢方醫學講習會에 金永勳 등과 함께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金永勳은 1882년에 태어나 1974년에 사망한 근대한 의학을 대표하는 한의학자이다. 그의 호는 定庵, 晴崗이다. 1904년에 同濟醫學校 교수로 선발되어 한학을 강의하였으나, 고종의 퇴위로 동제의학교가 문을 닫자, 典醫출신이며 당시 한의학의 원로였던 洪哲普, 張容駿, 崔奎憲 등과 八家一志會를 결성하여 한의학의 부흥운동에 힘을 기울

었다. 1915년에는 全國醫生大會를 계기로 발간된 韓醫學術雜誌인 『東醫報鑑』의 산과역할을 하였다. 그는 또한 東西醫學研究會의 幹事임무를 맡은 동시에 東洋醫藥社의 編輯部長을 지내며 『東洋醫藥』에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그는 趙憲泳 등과 함께 지방의 醫生講習所에서 열리는 강습회의 강사로도 활동하여 한의학의 후진을 양성하는 등 한의학부흥에 앞장섰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壽世玄書』가 있다.

4. 내용 및 학술경향

『東洋醫藥』의 내용은 대부분 한의학에 관한 이론 설명, 논설, 강의형식의 연재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물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漢醫學復興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漢醫學復興에 관한 논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는 당시에 서양의학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의료계 전체에 팽배하게 되면서 조선의 전통의학인 漢醫學을 발전시키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第一號에 실린 金永勳과 張基茂의 글이 이를 반영해 주는 대표적인 글들이다. 金永勳은 「漢方醫學復興論에對하여」³⁾라는 글에서 “조선의 현실이 인구에 비해 턱없이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 고급스런 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에서의 진료가 좋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선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시급한 조선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漢方醫藥이 중요하다.”면서 한방의학의 부흥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張基茂는 「漢方醫學革新論-朝鮮新醫學建設의前提로-」⁴⁾라는 글에서 “서양의학자의 시각에서 한의학을 바라보아서 가능성과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漢方醫學의 史的考察, 漢方醫學의 朝鮮에서의 地位, 漢方醫學衰退의 遠因과 近因, 漢方醫學革新의 意義, 科學上으로 본 漢方醫學, 民族的으로 본 漢方醫學, 漢方醫學의 將來 등의 소제목 하에 한의학 革新論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東西醫學研究會가 發刊하여 漢方醫學의 철저한 革新을 이룩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담고 있다.

(2) 醫學史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醫學史를 소개하는 글이 여러 편 실려 있다.

3) 『東洋醫藥』 第一號

4) 『東洋醫藥』 第一號

靈光學人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가 第一號에 쓴 「漢方醫學의輪廓」⁵⁾이라는 글은 저자가 한의학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緒言, 東洋醫藥의 元祖神農氏, 黃帝岐伯과 素問, 靈樞, 張仲景과 傷寒論, 金, 元, 明 三時代의 醫學과 本草, 李濟馬와 四象論, 漢方醫學의 今後, 結語 등의 소제목 순서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까지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金永勳이 쓴 「漢醫學의今昔」⁶⁾이라는 글도 또한 漢醫學史의 概要를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併記하며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삼국시대 및 남북국 시대의 한의학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의학의 傳來 과정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3) 脈學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脈學에 대한 글이 연재되었다. 趙憲泳이 연재한 「漢方脈學의新研究」⁷⁾라는 글이다. 趙憲泳은 이 글을 통하여 脈學의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글은 脈字의 意義, 脈과 生命, 生體異變의 種類와 脈動의 變調的 狀態의 不均等性, 脈學研究의 方法, 脈의 部位, 診脈의 五代基準, 診脈의 段階 등의 소제목 하에 각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脈學研究의 方法에 있어서는 脈의 變化를 驗察, 病과 脈을 對照, 脈에 依하여 症狀을 判斷, 脈法의 새 方面을 開發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맥진의 중요성 및 유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診脈의 五大基準에 따라 十二原脈을 소개하여 脈診의 기준점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4) 本草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本草와 藥物에 대한 글이 많이 실려 있다.

趙憲泳이 쓴 「本草藥理學과嘗百草說」⁸⁾, 「本草藥理學과氣味論」⁹⁾ 등의 글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 두 편의 글에서 本草藥理學의 기초인 氣味論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한의학연구에 크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氣味와 陰陽, 氣味の 相互關聯性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趙憲泳은 또한 「漢藥法製(修治)는 왜하는가」¹⁰⁾라는 글을 통하여 한약 수치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 『東洋醫藥』 第一號

6) 『東洋醫藥』 第二號

7) 『東洋醫藥』 第一號 ~ 第三號

8) 『東洋醫藥』 第一號

9) 『東洋醫藥』 第二號

그는 여기서 炮, 煨, 灸, 炒, 陰乾, 酒製, 酒洗, 酒浸, 酒蒸, 酒炒, 酥灸, 薑汁製, 童便製, 鹽製, 醋製, 蜜製, 米泔汁製, 乳汁製, 甘草湯漬, 陳壁土炒 등의 方法 및 修治 후의 效能과 각각의 해당 藥物들을 소개하고 있다.

成周鳳은 「藥材改良의必要」¹¹⁾라는 글을 통하여 眞正한 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약제가 不精하면 中病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당시의 한의사들이 약제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誤用되고 있는 여러 약제들의 예를 들어 가면서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전혀 다른 종류의 약을 쓰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수입산 약이 대부분 가짜이며, 값이 싸다는 이유로 효능이 다른 약을 비슷하게 섞어 쓰는 등의 당시의 현실을 辛辣하게 비판하고 있다.

(5) 四象醫學에 관한 글

『東洋醫藥』에는 四象醫學에 대한 글이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 이는 당시의 四象醫學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李乙浩가 쓴 「四象醫學의研究」¹²⁾라는 글이 연재되었다. 그는 이 글에서 李濟馬의 四象醫學論을 설명하였는데, 李濟馬와 四象醫學, 四象醫學의 理想, 四象人의 四大類型 등의 소제목 하에 사상의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李濟馬의 人體生理論이라는 제목으로 肺脾肝腎의 部位, 腑官의 職能과 互相關係, 肺之黨, 脾之黨, 肝之黨, 腎之黨과 其他 등 臟腑論을 서술하고 있다.

『東洋醫藥』의 편집부는 독자들을 위하여 『東醫壽世保元』 원문을 전재하고 있다. 「李濟馬四象醫論抄錄」¹³⁾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이 글은 趙憲泳이 四象醫學과 李濟馬에 대한 解題를 붙이고 『東醫壽世保元』 원문을 순차적으로 싣고 있다.

일제시대에 나온 대다수의 잡지에 四象醫學에 관한 내용은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四象醫學이 일제시대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 준다.

(6) 독자들의 질의에 응답한 글

『東洋醫藥』에는 독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해주는 의료상담 형식의 글과 통신강의 형식의 글이 실려 있다. 前者는 「療養顧問」¹⁴⁾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이고, 後者

10) 『東洋醫藥』 第二號

11) 『東洋醫藥』 第三號

12) 『東洋醫藥』 第二號 ~ 第三號

13) 『東洋醫藥』 第一號 ~ 第二號

는 「誌上教室」¹⁵⁾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이다.

「療養顧問」은 독자가 진료상담을 요청하면 『東洋醫藥』 편집부에서 처방 및 처방 등을 답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第二號에 문의된 병증들을 살펴보면 虛弱症, 七年된肺病, 産後の虛弱症, 健忘症, 幼兒慢驚, 子癇症과子懸症, 腎虛症, 蓄膿症 등 다양한 질병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第一號에는 ‘幼兒吐乳의家庭漢方療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吐乳의 원인은 모체가 陽虛氣虛하여 생리적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白朮을 단미요법으로 쓰거나 五味異功散을 복용하면 된다. 人蔘이 高價라서 쓰기 어려울 때는 平胃散을 복용시킨다.”라고 하여 독자들의 경제적 형편까지 고려한 자상한 상담을 하고 있다.

「誌上教室」은 漢醫業 종사자 및 學生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취하고 있는 글이다. 여기에는 서신으로 접수된 질문뿐 아니라 당시의 지방 醫藥講習會場에서 나왔던 질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第二號에 실린 질문들을 살펴보면 膽病에發黃은何也오, 三焦는어떤것인가, 桃花色의얼굴과肺病, 胎兒는왜거꾸로있나, 太過·不及·平氣年, 臟病은相克·腑病은相生, 五臟相生을說明해주시오, 水昇火降을說明해주시오, 五運六氣를說明해주시오, 男主左女主右, 陽明三病 등 한의학 기초이론에서부터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당시 한의계의 동향

『東洋醫藥』을 통하여 당시의 한의계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의 한의사 단체인 東西醫學研究會는 결성 당시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第一號에 실린 「東西醫學研究會革新大會趣旨書」라는 글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漢醫學의 발전과 漢方醫藥業者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창립된 지 10여년이 넘었다. 잦은 추태를 연출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全然沈息상태에 빠진 것은 실로 慙愧를 금치 못할 일이다. 한의학의 발원지는 中國이나 朝鮮에 와서 더욱 발전되었다. 신진학자들이 漢醫學振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기회에 한자리에 모여 안으로는 한의학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漢方醫藥業者의 지위의 향상 보장을 힘쓰자. 한걸음 더 나아가 漢醫學教育機關의 설치 및 漢醫存續의 방도를 강구하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부흥의 분위기에 고조된 자신감의 표현이며 그러한 자신감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14) 『東洋醫藥』 第一號 ~ 第三號

15) 『東洋醫藥』 第二號 ~ 第三號

『東洋醫藥』이 창간된 이후에 漢醫藥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咸鏡北道, 咸鏡南道, 全羅北道, 忠清南道 등지에서 醫學講習會 및 醫生과 藥種商들을 위한 강습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東西醫學研究會의 임원인 田光玉, 金東熏, 趙憲泳, 金永勳 등이 직접 현지에 가서 강의를 하였다. 또한, 忠南醫藥組合이 창립되었고, 咸興과 平讓에 藥令市가 신설되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변화는 당시에 고조된 한의학부흥의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는 일들이다.

III. 결론

『東洋醫藥』은 1935년에 한의학을 부흥시키려는 목적 하에 총 3회 발간된 잡지이다. 본 잡지는 東西醫學研究會의 주요임원들, 특히 金永勳, 趙憲泳 등에 의하여 그 발간이 주도되었다. 이 잡지에는 漢醫學復興, 醫學史, 脈學, 本草, 四象醫學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東洋醫藥』 편집부는 독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해주는 의료상담 형식의 글과 통신강의 형식의 글을 통하여 한의학의 내용을 널리 알려 한의학의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고, 아울러 한의약관련 종사자들의 재교육에도 힘썼다. 『東洋醫藥』이 창간된 이후에 漢醫藥界에서 일어난 醫學講習會 및 藥令市의 신설 등은 당시에 고조된 한의학부흥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IV. 參考文獻

1. 趙憲泳. 『東洋醫藥』 第一號 ~ 第三號, 東洋醫藥社, 京城, 1935.
2. 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서울, 1998.
3. 맹용재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의성당, 서울, 1991.
4. 정지훈. 「日帝時代初期韓醫學術雜誌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